

전북 생태관광 포문 열다

**제10회 그린웨이 환경축제
도청광장 인파 3000명 몰려
시·군별 체험부스 '큰 호응'**

전북도가 지난 2~3일까지 도청광장에서 열린 제10회 그린웨이 환경축제에서 '생태관광 1번지 전라북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메인 행사장에서는 시·군별 생태관광지의 특성을 살린 8개의 체험부스가 펼쳐져 이틀간 어린이들부터 성인까지 3,0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큰 인기를 얻었다.

정읍시 부스에서는 내장산 생태관광지 내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

을 부채에 그리는 체험행사가, 남원시 부스에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물방개, 장수풍뎅이, 애벌레 등 살아있는 곤충체험과 더불어 생태교육 O·X퀴즈, 물방개 레이스와 곤충집 만들기, 표본만들기 등의 체험이 열려 많은 어린이들로 북적였다.

순창, 고창, 임실, 완주, 장수 등 도내 군 지역 홍보부스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홍보부스 내에 장수와 완주에서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오미자 슬러시와 개복숭아 효소 음료를 2,000잔이 넘게 판매하며 작지만 지역주민의 소득과 함께하는 생태관광의 성공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한 전북 생태관광'을 주제로 도청 2층 공연장 세미나실에서는 국내외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포럼이 열리기도 했다.

포럼은 서울대학교 강미희 교수의 생태관광지역의 국내외 시설 사례를 시작으로, 신정섭 생태문화연구소 소장의 생태자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미술평론가의 생태관광과 문화예술의 만남, 거위의 꿈 이준경 대표의 여행복지, 카트리아델 대표의 생태관광의 국내외 마케팅 사례까지 폭넓은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전북도의 생태관광 정책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전북도를 만들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